

현대차, 인니 생산·판매 밸류체인 구축... 아세안 공략 박차

HMMI 공장 가동률 100% 돌파
코나 EV,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적용
특화차량 등 현지 판매 전략 고도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삼아 아세안 지역 공략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해외 생산법인 가운데 가장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생산법인(HMMI)과 현지 합작법인에서 생산된 배터리셀 본격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가동 중인 베트남 생산법인(HTMV)과 지난해 준공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까지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안정적인 제품 개발, 생산, 판매체제 구축을 통한 차별화를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아세안 공식 포털에 따르면 아세안 전체 인구는 2022년 기준 6억 7170명에 달하며 오는 2050년에는 인구가 8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브



현대차 인도네시아 생산법인(HMMI) 전경

카시 델타마스 공단 내 HMMI를 준공했다. 약 77만 7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약 15억 5000만달러를 투자하는 HMMI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아세안에 만든 완성차 공장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현재 HMMI에서는 현지 특화 전략차종인 크레타와 ▲다목적차량(MPV) 스타게이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쉐타페 ▲아이오닉5 등 4종의 차량을 만들고 있다.

HMMI는 가동 2년여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HMMI 생산능력은 2만 300대, 생

산실적은 2만 2520대를 기록하며 110.9%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공장(114.9%)을 제외하고 해외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 50.3%를 기록했던 HMMI 공장 가동률은 같은 해 4분기 63.6%를 기록하더니 올해 1분기 100%대를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HMMI의 누적 공장 판매대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19만 2792대로 집계됐다. 6월 수치가 더해질 경우 상반기를 전후로 누적 20만대 돌파가 유력하다. 올해 1~5월 HMMI 수출 물량도 2만

288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만 8984대) 대비 20.5% 증가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는 등 아세안 밸류체인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신산업 단지(KNIC)에 건설한 배터리셀 합작공장(HLI그린파워)이 지난해 6월 완공된 이후 전기차 시장 공략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HLI그린파워의 인도네시아산 배터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현대차 모델은

신형 코나일렉트릭(EV)이다. 코나 일렉트릭 생산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는 지난해 7475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44.3%)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을 앞세워 전기차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한편, 특화 차량 등 현지화 판매 전략으로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7년 베트남 탄콩그룹과 베트남 남딘성에 생산합작법인 'HTM V'를 설립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는 HTMV 2공장을 준공하는 등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싱가포르 서부 주류 혁신지구에서 제조 설비, 연구개발(R&D) 공간, 고객 체험 시설을 갖춘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구축하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온, 비상경영 돌입... “흑자달성때까지 임원 연봉 동결”

흑자전환 총력... 조직개편 본격화
이석희 CEO “자강불식으로 위기극복”

SK온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조직을 효율화하고 흑자전환 달성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한다.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변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과감하게 바꾸고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SK온은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고 1일 밝혔다. 각 지역에 분포된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했다.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와 조직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석희 SK온 CEO

SK온은 변화된 경영환경을 반영, 조직을 효율화한다. 업무영역과 진행절차, 그에 따른 자원 배분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변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다.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극복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해서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최고생산책임자(CP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 전원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최고관리책임자(CAO)와 최고사업책임자(CCO) 등 일부 C레벨직을 폐지하고, 성과와 역할이 미흡한 임원은

연중이라도 보임을 수시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올해 분기 흑자전환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임원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 임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복리후생 제도와 업무추진비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 출장 이코노미석 탑승 의무화, 오전 7시 출근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SK온은 다만 핵심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객사에 대한 상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 조직을 권역별로 분리·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기업문화를 위해 전체 구성원들이 노력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을 각자 결정하는 유연 근무제도는 유지하되 근무 시간에는 업

무에 몰입하도록 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택보다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SK온 이석희 CEO(사진)는 “임원과 리더들부터 위기 상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겠다”며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진정한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 내실을 다지는 기회”라며 “우리 모두 ‘자강불식(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의 정신으로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동국제강그룹 ESG 경영 체제 고도화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그룹 분할 후 각각 ESG 보고서를 냈다.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2개사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동국제강 그룹 분할 후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다. 각사는 ESG 경영 목표·현황·성과 등을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그룹 분할로 독립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각기 특성에 맞는 ESG 경영 활동을 지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ns@

애경케미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애경케미칼이 ESG 경영 체제를 튼튼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애경케미칼은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더(THE)! 애경케미칼'이라는 ESG 전략을 공개하며 체계적인 ESG 경영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GRI 등 ESG 글로벌 공시기준을 준수해 작성했으며 전문검증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 보고서 전문은 애경케미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수주

한국남동발전 2600억 규모 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가스터빈을 포함한 복합발전소 주기기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동발전과 2600억원 규모의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블록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993년과 1997년 2차에 걸쳐 준공된 분당복합발전소 1·2블록을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복합발전소 조감도 /한국남동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는 380MW(메가와트) 규모 H급(터빈 입구 온도 1500℃ 이상)의 고효율 모델) 초대형(300MW 이상)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열공급설

비 등을 오는 2028년 3월까지 분당복합 1블록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국내 340여개 산·학·연이 함께 개발한 K-가스터빈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에 큰 힘을 불어넣은 한국남동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과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가스터빈 관련 7조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핀에어 북유럽 최고 항공사 선정

핀에어가 고객 만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도 북유럽 최고 항공사 자리를 지켰다.

핀에어는 스카이트랙스 2024 세계 항공대상에서 ‘북유럽 최고 항공사’로 14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10년 처음 북유럽 최고 항공사로 선정된 이후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 없다.

스카이트랙스 항공대상은 항공업계 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핀에어는 운항 신뢰성 강화, 디지털 서비스 향상, 고객 선택지 다양화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박대성 수습기자